

인터넷을 활용한 학부모참여* : 중학교 국사 교과학습을 중심으로

최 근 선 · 이 종 경
(개봉중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학교교육에의 학부모참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행동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학부모참여 활동 가운데 특히 교과학습활동에의 참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직접 관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의 경우 현실적으로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과학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인터넷을 교과 교수·학습활동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며 교사·학생·학부모가 보다 바람직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본 연구는 5주에 걸쳐 인터넷을 활용한 국사 교과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하고, 그 전과 후 2차에 걸쳐 학생·학부모 각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국사 교과 교수·학습활동이 실제로 중학교 교과학습에의 학부모참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러한 학부모의 참여는 학생의 학습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I. 서 론

1966년 존스홉킨스대학교의 J. S. Coleman 교수는 미국 전역의 학생 625,000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100여 개의 변인을 연구하였다. 학교시설이나 교사의 봉급 등과 같은 교육투자 경비의 불평등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의 예상은 빗나갔고 오히려 부모의 소득, 교육수준과 같은 가정환경 요인이 학생의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후 가정환경의 개선, 가정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최근에는 어떻게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대안적 관점에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연

계·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학교교육에의 학부모참여’를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하게 되어, 보다 다양한 학부모참여 정책들이 소개되고 있다(OECD, 1997). 우리나라에서도 학교교육에의 적극적인 학부모참여 방안으로 1998년부터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학교교육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을 보

* 본 연구에서 ‘학부모참여’는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의 교사로서 자녀의 학교교육에 필요한 지원, 참관, 학습지도, 의사소통, 의사결정 등에 이르기까지 학부모가 실행하는 폭넓은 활동을 의미한다.

다 올바른 유도하고 학생에 대한 가정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학교교육과 가정의 바람직한 연계는 학교교육의 전반을 차지하는 교과교육과의 연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김정효,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참여에 관한 연구는 교육행정학 분야에서 학교의 행정 및 재정 운영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과학습에의 학부모참여'에 관한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수학학습이나 독서지도와 관련된 연구가 있을 뿐, 중학교 교과학습에의 학부모참여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실적으로도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는 읽기·쓰기·셈하기 등을 비롯하여 교과와 관련된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감수록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는 점차 적어지며, 중학생의 경우 학부모가 관심이 있더라도 자녀의 교과학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 폭발적으로 확산된 인터넷을 학교 교과교육의 도구로써, 교과교육에 대한 가정에서의 학부모참여의 도구로써 활용하면 '질판과 문필'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학교 교과교육의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고 학교 교과교육과 가정의 학부모를 연결하며 교사·학생·학부모가 보다 바람직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사가 학습 목표, 학습자료, 학습내용, 과제 등이 포함된 교수·학습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웹(www)에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은 교과 시간 외에 가정에서도 언제든지 교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가정에서 교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녀의 교과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자녀와 함께 인터넷에서 정보를 탐색하며 자녀의 학습을 지원할 수도 있다. 또한 전자우편(E mail), 전자게시판(BBS)과 같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생 상호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현재의 교사와 학부모들은 성장 과정에서 컴

퓨터와 인터넷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대부분 학생들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에 익숙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기성 세대의 관심과 지도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자기들끼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인터넷을 교수·학습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인터넷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생산적인 활용을 유도하며, 나아가 가정에서도 학부모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법을 알고 자녀와 함께 이를 활용한다면 인터넷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의 참여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사'는 TV의 사극이나 교양 프로그램,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관한 각종 뉴스컴의 보도 등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학부모들도 익숙하게 접하며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도 다양한 교과이다. 그러므로 수학이나 과학 등과 같은 교과에 비해 인터넷을 활용한 국사 교과학습에의 학부모참여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1년 4월30일부터 6월2일까지 5주 동안 구로구 K중학교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국사 교과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학부모들에게도 알려 자녀들의 국사 학습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한 국사 교과 교수·학습활동 실시 전·후 2차에 걸쳐 학생·학부모 각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 대상 설문조사는 4월18일부터 4월21일(1차), 6월7일부터 6월9일(2차) 사이의 교과시간 중에 실시하였다. 학부모 대상 1차 설문지는 4월23일에 학생들을 통해 배부하고, 학부모가 응답한 설문지를 4월24일부터 4월30일 사이에 학생들을 통해 회수하였다. 1차와 같은 방식으로, 6월18일 학생들을 통해 2차 설문지를 배부하여 6월19일부터 6월25일 사이에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사 교과학습에 있

어서 인터넷의 활용이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과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인터넷을 활용한 학부모참여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부모의 소득, 교육수준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1966년 J.S.Coleman의 보고 이후, 20여 년 간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 Leibowitz, Goldberg와 같은 연구자들은 유전적인 지적 능력, 부친의 부재, 보다 학력이 높은 모친과 같은 인구통계적 변인이 교육적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였으나, 근래의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경제적 또는 구조적인 변인들 보다는 부모의 관심, 부모가 자녀와 관계하는 방식 등과 같은 가정의 환경적 변인이 학업성취와 보다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de Kanter 외, 1986).

이러한 논의들 발전시켜, 최근의 대안적 관점에서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으며, 학교 가정간의 관계가 긴밀해질수록 두 기관의 효과성이 강화된다고 본다. 그리고 학교교육에 학부모를 참여시킬 때, 학생의 성적을 향상시키며 행동을 개선해주고 학생과 교사에게 대한 부모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고, 보다 효과적인 학교를 만들어 준다고 보기 때문에, 학생의 성취 및 학교교육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학교교육에의 학부모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이순형, 1992).

학교교육에의 학부모참여에는 다양한 유형과 활동 수준이 있다. 학생의 학업성취에 가장 영향을 주는 학부모참여는 어떤 유형의 활동인가?

Bempechat(1990)은 부모가 자녀들의 학문적 성취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인지적 사회화

(cognitive socialization)'와 '학문적 사회화(academic socialization)'로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지적 사회화'는 특별한 기술이나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 '부모교수(parental teaching)'가 배어 있는 것으로, 부모가 자연스럽게 자녀의 학습을 장려하고, 새로운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구조화함으로써 기존의 지적 개발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학문적 사회화'는 학교학습에 필요한 태도와 동기의 개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성공을 능력에 귀착시키고, 학교나 학부모들과의 교류를 통한 지원 전략을 사용하는 부모의 실행과 관련된다. 김정호(1998)는 우리 사회의 흔히 혹은 과다한 사교육비 등의 사회 문제는 '학문적 사회화'와 같은 유형의 참여가 왜곡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우리 사회의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참여는 학부모들이 학문적 사회화의 동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지적 사회화의 동인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교과와 연관된 학부모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Fullan(1987)은 학부모참여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을 분석·종합하여, 학교교육에의 학부모참여 유형을 '교수활동에의 참여(involve-ment in instruction)'와 '비교수활동에의 참여(non-instruction forms of parent involvement)'로 나누었다. 그에 따르면, 학부모자문협의회나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에의 학부모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비교수활동에의 학부모참여는 학생 성취와 명백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수활동에의 학부모참여는 학생성취에 유의하며, 장차 가정용 소형컴퓨터의 급속한 확산을 통하여 교수활동에서 학부모들의 역할에 다른 가능성이 추가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Ⅲ. 인터넷을 활용한 국사 교과 교수·학습활동과 학부모참여

이미 십 수 년 전 Fullan이 예측하였던 바와 같이 각 가정에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각 가정의 컴퓨터는 학부모참여의 새로운 도구로써, 특히 고학년의 교과 학습에서 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국사 교과학습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학부모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제 교과·학습활동에 적용하여 학부모참여 방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1.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사와 학생이 만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원격교육(온라인 강의, 사이버 강의)이며, 다른 하나는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인터넷의 다양한 기능을 학교의 교과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후자에 해당한다.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는 중·고등학교 역사수업에서의 인터넷 활용 방안을 모색한 이화순(1998)의 '고등학교 세계사 수업에서의 인터넷 활용 방안'과 박민정(1999)의 '역사 교육에서의 인터넷 활용 방안'이다.

이화순은 실제 수업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교사의 홈페이지 구축을 제안하고,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의 학습 내용 중 '프랑스 혁명'에 관한 내용으로 두 시간 분량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수업안을 제작 소개하였다. 그러나 제작된 수업안으로 직접 수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며 다만 인터넷을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역사 교사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제작 소개하였다. 박민정은 이화순에서

한 걸음 나아가, 중학교 사회 과정 중 '로마의 문화'와 '산업혁명'에 관한 인터넷 활용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다. 실제 수업 후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쌍방향적 교수·학습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역사 교육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었음을 입증하였다.

이화순과 박민정의 연구를 통하여 역사교육 목표 달성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의 활용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때, 인터넷 본래의 탁월한 기능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정보의 바다'로 불리는 인터넷은 기존의 교실 수업, 교과서에서는 얻기 어려운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자료를 찾는 과정 자체가 학습활동이 된다. 그러나 인터넷은 일차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자료들이 많은 '오류정보'의 바다, '정보의 쓰레기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책에 비해 신뢰도가 낮아, 자칫 잘못하면 부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또한 인터넷의 탁월한 '하이퍼미디어' 기능은 몇 번의 클릭으로 학생들이 쉽게 학습 내용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도적이 아니라도 몇 번의 연속적인 클릭에 의해 학생들은 원래의 학습 주제와 거리가 먼 주제로 이동하여 방향을 잃고 헤맬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에서도 교사의 역할, 가정에서의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화순과 박민정의 연구를 국사 교과학습에 적용하여 인터넷을 국사 교과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교 교과교육과 가정의 학부모를 연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인터넷을 활용한 국사 교과 교수·학습활동의 전개

본 연구를 위하여 먼저 국사 교수·학습용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그림 1)참조).



[그림 1] 국사 교수·학습용 홈페이지 메인 화면

본 연구의 과정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국사 교과 교수·학습활동은 '질판과 분필'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교수·학습활동을 인터넷 상의 가상교실로 대체하고 각자 가정에서 학습하는 원격학습이 아니라,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기존의 교수·학습활동을 보완하는 것이다. 즉 교수·학습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웹(www)에 공개하여, 교과 시간 외에도 학생들이 교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언제든지 학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부모들도 가정에서 자녀의 인터넷을 활용한 국사 학습을 관찰하거나 학습을 지원하고, 게시판(BBS)이나 전자우편(E-mail) 등의 인터넷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간에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홈페이지는 국사교실, 자료실, 세계사교실, 추천사이트, 게시판, 방명록, 학부모게시판으로 구성하였다([그림 1]참조).

'국사교실'은 중학교 2학년 국사 교과서의 'Ⅲ. 중앙 집권 국가의 형성' 단원의 내용을 10차시로 재구성한 것으로, 매 차시마다 학습목표와 과제, 그리고 전통적인 교실에서의 교수·학습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던 기존의 사료, 그림, 사진 등을 디지털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5주 동안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35대가 비치되어 있는 학교 컴퓨터실에서 교

수·학습활동을 진행하였다. 매 시간 학생들에게는 학습목표와 관련된 학습지가 배부되었으며, 학생들은 '국사교실'의 해당 차시를 바탕으로 각자 필요한 자료를 찾고, 서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주어진 과제를 해결한 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교수·학습활동이 전개되었다. 학교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국사 교과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간 중, 교과시간 이외에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홈페이지를 방문할 것을 권장하였다.

'자료실'은 '국사교실'과 관련된 자료를 설명하거나 관련 사이트를 소개한 곳이다. '세계사교실'은 중·고등학생의 학습을 위하여 지인들이 만든 홈페이지를, 그리고 '추천사이트'는 '국사교실'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들을 링크시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게시판'은 학습과 관련된 질문이나 답, 자료를 올리고 서로 토론을 하기 위한 곳이다([그림 2]참조). 그러나 교사와 학생간의, 학생 상호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서로 질문에 간단히 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학습과 관련된 질문이나 답, 자료를 올리고 서로 토론을 하기 위해 준비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방명록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내용들이 게시되거나 심지어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을 이용한 학생들의 장난으로 낙서판이



[그림 2] 게시판



[그림 3] 학부모게시판

되기도 하였다.

‘학부모게시판’은 자녀의 학습에 관심을 갖고 본 연구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학부모들을 위하여 준비한 공간이다([그림 3]참조). 14명의 학부모가 홈페이지에 마련된 학부모게시판에 의견을 게시하였는데, 한 학부모는 게시판에 올렸던 글을 곧 삭제하고 후에 E-mail을 보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열린 공간에 자신의 의견이 게시되고 공람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곧 삭제한 후 같은 내용을 E-mail로 다시 보낸 학부모를 포함하여 10명의 학부모가 E-mail을 통해 교과학습에서의 인터넷의 활용, 학교·가정의 연계에 대한 의견을 보냈다.

IV. 설문조사와 반응 분석

인터넷을 활용하여 학부모 참여를 시도한 국사 교과학습의 전개에 앞서 우선 학생들이 교과시간에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용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가정에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는지, 학부모들의 인터넷 이용능력 및 국사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인지 등에 관한 조사가 요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과 학부모 각각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정의 정보화 환경,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인터넷 이용능력 및 이용실태, 국사

에 대한 관심 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5주에 걸쳐 인터넷을 활용한 국사 교과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한 후, 학생들의 반응, 학부모의 관심 및 학부모참여의 성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시 학생과 학부모 각각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넷을 활용한 국사 학습에 참여하고 1차·2차 설문에 응답한 학생은 133명(남학생58명, 여학생75명), 학부모는 100명이었다.

회수된 설문지, 학부모들이 보낸 E-mail과 학부모게시판에 게시된 글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차 설문조사

정보통신부의 발표(2001.1.15)에 의하면 전국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PC 보유 가구는 49.8%이다. 이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대상 학생은 82%가 가정에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으며, 60% 이상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표 1>참조), 가정의 정보화 환경면에서 전국적인 수준보다 상당히 높았다.

<표 1> 가정의 정보화 환경

인터넷 사용 가능 컴퓨터	있다	109명(82.0%)
	없다	24명(18.0%)
인터넷 접속 방법	초고속전산망	81명(60.9%)
	케이블접속	6명(4.5%)
	전화접속	12명(9.0%)
	모른다	8명(6.0%)
	기타	2명(1.5%)

학생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인터넷 이용능력과 이용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표 2>참조), 학생들 가운데 인터넷 이용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은 없었으며, 15.8%의 학생만 자신의 인터넷 이용능력을 초보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인터넷 이용시간은 48.9%의 학생이 매일 1

시간 이상 인터넷을 하며, 매일 3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생도 17.3%나 되었다. 이에 비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부모는 28%가 인터넷을 이용할 줄 모르며, 42%는 자신의 인터넷 이용능력을 초보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할 줄 아는 학부모 가운데 27.8%는 '거의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이용능력이나 시간에 있어서 자녀들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표 2>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

이용능력	아주 잘한다	14명(10.5%)
	잘한다	24명(18.0%)
	보통이다	74명(55.6%)
	초보수준이다	21명(15.8%)
	없다	0명(0%)
이용시간	매일 3시간이상	23명(17.3%)
	매일 1~2시간	42명(31.6%)
	주 3시간이상~6시간미만	25명(18.8%)
	주 1시간이상~3시간미만	34명(25.6%)
	거의 안한다	9명(6.8%)

<표 3> 학부모들의 인터넷 이용

이용능력	아주 잘한다	0명
	잘한다	6명
	보통이다	24명
	초보수준이다	42명
	없다	28명
이용시간	매일 3시간이상	1명
	매일 1~2시간	18명
	주 3시간이상~6시간미만	8명
	주 1시간이상~3시간미만	25명
	거의 안한다	20명

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온라인게임, 이메일, 채팅 순으로 나타났다(<표 4>참조). 특히 남학생들은 온라인게

임(75.9%)을, 여학생들은 이메일(45.3%)과 채팅(16.0%)을 가장 많이 한다고 답하여, 성별에 따라 용도의 차이가 있었다. 학부모들이 보기에도(<표 5>참조)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은 정보검색이나 학습과 같은 생산적인 활동보다는 게임이나 채팅을 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하는 활동

	남학생	여학생	전체
숙제나 공부 위한 검색	1명 (1.7%)	3명 (4.0%)	4명 (3.0%)
온라인게임	41명 (75.9%)	9명 (12.0%)	53명 (39.8%)
이메일	3명 (5.2%)	34명 (45.3%)	37명 (27.8%)
연예·스포츠 정보검색	2명 (3.4%)	7명 (9.3%)	9명 (6.8%)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0명 (0%)	1명 (1.3%)	1명 (0.8%)
채팅	2명 (3.4%)	12명 (16.0%)	14명 (10.5%)
MP3파일 다운로드	1명 (1.7%)	2명 (2.7%)	3명 (2.3%)
전자게시판 토론	1명 (1.7%)	0명 (0%)	1명 (0.8%)
동호회 활동	3명 (5.2%)	4명 (5.3%)	7명 (5.3%)
기타	1명 (1.7%)	3명 (4.0%)	4명 (3.0%)
계	58명 (100%)	75명 (100%)	133명 (100%)

<표 5> 학부모들이 본 자녀의 인터넷 이용

주로 정보검색 이나 학습	매우 그렇다	3명
	그렇다	35명
	별로 그렇지 않다	47명
	전혀 그렇지 않다	6명
	모르겠다	7명
	무응답	2명
주로 게임이나 채팅	매우 그렇다	5명
	그렇다	50명
	별로 그렇지 않다	32명
	전혀 그렇지 않다	6명
	모르겠다	5명
	무응답	2명

불건전 정보 접속	매우 그렇다	0명
	그렇다	3명
	별로 그렇지 않다	14명
	전혀 그렇지 않다	71명
	모르겠다	10명
	무응답	2명

최근 인터넷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부모들의 근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학생의 18.9% 여학생의 36.0%가 불건전한 채팅의 경험이 있으며, 또한 남학생의 48.2% 여학생의 30.7%는 음란, 도박, 자살 등과 같은 불건전사이트를 방문한 경험이 있고, 10회 이상 방문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9.8%로 나타났다(<표 6>참조). 그러나 <표 5>에서 자녀가 불건전정보에 접속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불과 3%로,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불건전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었다.

<표 6> 학생들의 불건전한 인터넷 이용

6-1. 건전하지 못한 채팅 경험

	남학생	여학생
10회이상	6명(10.3%)	3명(4.0%)
6~10회정도	0명(0.0%)	3명(4.0%)
1~5회정도	5명(8.6%)	21명(28.0%)
없다	47명(81.0%)	48명(64.0%)

6-2. 건전하지 못한 사이트 방문 경험

	남학생	여학생
10회이상	10명(17.2%)	3명(4.0%)
6~10회정도	1명(1.7%)	2명(2.7%)
1~5회정도	17명(29.3%)	18명(24.0%)
없다	30명(51.7%)	52명(69.3%)

인터넷 사용 문제로 53.4%의 학생이 부모와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으며, 58.6%의 학생은 부모가 인터넷 사용을 제한한다고 응답하였다(<표 7>참조). 이로써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

향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7>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갈등

부모와의 갈등 경험	아주 많다	12명(9.0%)
	가끔 있다	59명(44.4%)
	거의 없다	30명(22.6%)
	전혀 없다	32명(24.1%)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	절저히 제한한다	12명(9.0%)
	약간 제한한다	66명(49.6%)
	별로 제한하지 않는다	38명(28.6%)
	전혀 제한하지 않는다	17명(12.8%)

국사 교과에 관하여, 국사과목을 좋아하는 학생(79명) 가운데 60.8%가 국사를 좋아하는 이유로 ‘국사 수업이 재미있기 때문에’라고 답한 반면, 국사를 싫어하는 학생(51명) 가운데 53.7%의 학생이 ‘외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를 이유로 들었다. 이것은 국사학습이 교과서에 나열되어 있는 무수한 사건, 인물, 제도들을 외워야 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국사과목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표 8>에서 국사과목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 51명 가운데 39명이 국사 수업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기대가 크다’고 한 것을 볼 때 학생들의 흥미와 능동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은 ‘원래 역사나 사회 등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학창시절 외울 것이 많고 수업이 지루했기 때문에’ 등을 이유로 40%가 국사에 관심이 없거나 적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현재와 미래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역사소설이나 TV사극 등이 재미있어서’ 등의 이유로 60%의 학부모가 국사에 관

<표 8> 학생들의 국사에 대한 흥미와 인터넷 활용 수업에 대한 관심

	국사 과목을 좋아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인 터 넷 활 용 수 업 에 대 해	인터넷 활용 수업에 관심이 많으며 기대 가 크다	9	52	30	9
	관심은 있으나 인터 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걱정된다	0	6	3	1
	관심은 있으나 수업 에 별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2	6	2	1
	관심없다	0	2	7	0
	기타	1	1	1	0
계		12	67	43	11

심이 많다고 응답함으로써 일단 교과목 자체에 대한 학부모들의 친밀감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84%의 학부모가 본 연구자의 수업용 홈페이지를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표 9> 참조).

<표 9> 학부모들의 국사 교과에 대한 관심과 교수·학습용 홈페이지 방문 의향

국사 교과에 관심	매우 많다	9명
	많다	51명
	많지 않다	36명
	전혀 있지 않다	4명
홈페이지 방문 의향	있다	84명
	없다	16명

2. 2차 설문조사

5주 동안 진행된 인터넷을 활용한 국사 학습에 대하여 76%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이 흥미가 있었으며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의 활용은 ‘교과시간’ ‘교실’이라는 물리적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내용을 다시 보며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이 전개되었던 5주 동안 교과시간 이외에 본 연구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적이 전혀 없는 학생이 27.8%나 되었다(<표 10> 참조). 그 이유는 우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집에 없거나(18%) 모델을 사용하는 학생들(9%)은 교과시간 외에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표 1> 참조).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부터 각종 교내 행사가 많아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5월에 인터넷을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이 전개되었던 점도 교과시간 외 방문이 적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기타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문가의 도움 없이 연구자가 기초 과정을 응용하여 직접 제작한 홈페이지는 멀티미디어 기능의 활용이 부족하고 단조로와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의욕을 지속적으로 유발하지는 못하였던 점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1차 설문조사에서, 83%의 학부모가 인터넷의 활용이 아이들의 국사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84%의 학부모가 본 연구자의 수업용 홈페이지를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2차 설문조사에서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았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38명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들 중 16명은 한 번, 15명은 두세 번 방문했다고 밝혔다(<표 10> 참조). 이로써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참여한 학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더욱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홈페이지를

<표 10> 국사 교과 교수·학습용 홈페이지 방문

학생들의 교과시간 이외 방문	주 4회 이상	10명(7.5%)
	주2~3회 정도	21명(15.8%)
	주 1회 정도	19명(14.3%)
	한두 번 있다	46명(34.6%)
	전혀 없다	37명(27.8%)
학부모들의 방문	수 차 습관적으로	1명
	예닐곱 번	0명
	네다섯 번	6명
	두세 번	15명
	한 번	16명
	전혀 없다	62명
학부모들의 미방문 이유	바빠서	30명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	9명
	인터넷 이용방법을 몰라서	9명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컴퓨터가 없어서	2명
	국사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12명

방문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의 가장 큰 이유는 '바빠서'였다.

홈페이지를 방문한 학부모가 많지는 않았지만 73%의 학부모가 인터넷을 교과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표 11>참조).

홈페이지를 방문한 학부모들은 처음 방문했을 때와 두 번 이상 방문했을 때 모두 학습내용을 살펴본 학부모가 많았다. 그러나 홈페이지의 학습내용을 살펴본 학부모들도 실제 자녀의 학습활동을 지원하지는 않았다. 이는 중학교 교과내용에 관하여 학부모가 학생보다 앞서거나 비슷한 수준이 아닌 경우 사실상 직접 학습활동을 지원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내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자녀의 학습내용을 참관할 수

<표 11> 인터넷활용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

교과학습에의 인터넷활용 찬성	매우 그렇다	18명
	그렇다	55명
	보통이다	21명
	그렇지 않다	5명
	전혀 그렇지 않다	1명
인터넷활용 교수·학습 활동에 관하여 자녀와 대화	7회 이상 수차	1명
	대여섯 번	4명
	서너 번	16명
	한두 번	54명
	전혀 없다	25명

있으며, 학습내용에 관하여 자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국사는) 제가 학교에 다닐 때에 제일로 좋아하던 과목이에요. ○○이를 통하여 국사 수업을 컴퓨터로 한다고 하여 선생님 수업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보니 25년 전에 제가 공부하던 방식하고는 너무나 달라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아이니에 자녀의 공부를 부모와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아요. ... 부모도 자녀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자녀의 교육에 동참할 수 있고, 자녀와 대화할 시간이 많아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부모 자녀간에 친구 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 학교에 가야만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만이 공부의 전부였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집에서 선생님과의 대화, 궁금한 것, 고민 등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고 고마운 일입니까! 또한 선생님과 부모와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 ", "학교사정이 허락하신다면 다른 과목까지도 이런 인터넷 수업이 확대되었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욕심을 가져봅니다"와 같은 학부모들의 글은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동참할 수 있고,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간에도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 주었다.

홈페이지를 방문한 학부모는 기록 많지 않았지만, 75%의 학부모가 국사 교과 교수·학습활동에 인터넷을 활용하였던 5주 동안 자녀와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11>참조). 일단 관심을 갖고 자녀와 대화를 나눈 학부모들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이 제시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국사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학부모의 참여를 요구한다면 참여의 가능성이 높은 학부모들이다.

5주 동안 전개된 인터넷을 활용한 국사 학습과 이에 대한 학부모참여는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시간, 이용능력, 이용내용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 왔을까? 학생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변화는 <표 12>와 같다.

<표 12>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에서의 변화

이용시간의 증가	매우 그렇다	8명(6.0%)
	그렇다	18명(13.5%)
	보통이다	78명(58.6%)
	그렇지 않다	16명(12.0%)
	전혀 그렇지 않다	13명(9.8%)
인터넷 이용능력의 향상	매우 그렇다	4명(3.0%)
	그렇다	28명(21.1%)
	보통이다	77명(57.9%)
	그렇지 않다	18명(13.5%)
전혀 그렇지 않다	6명(4.5%)	
	매우 그렇다	7명(5.3%)
	그렇다	47명(35.3%)
	보통이다	66명(49.6%)
그렇지 않다	8명(6.0%)	
	전혀 그렇지 않다	5명(3.8%)

5주 동안 인터넷 이용시간이 증가한 학생은 19.5%, 이용능력이 향상된 학생은 24.1%이다. 1차 설문조사 당시 48.9%의 학생이 매일 한시간 이상 인터넷을 하며, 84.1%의 학생은 자신의 인터넷 이용능력을 보통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표 2>참조), 5주 동안 이

용시간이나 이용능력 면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표 12>를 보면, ‘자료 검색 등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보다 많이 하게 되었다’고 답한 학생은 40.6%로, 이용시간의 증가나 이용능력의 향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학부모도 44%가 ‘자녀가 자료 검색 등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전보다 많이 한다’라고 답하였다(<표 13>참조).

<표 13> 학부모가 본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서의 변화

인터넷 이용시간의 증가	매우 그렇다	4명
	그렇다	28명
	보통이다	40명
	그렇지 않다	18명
	전혀 그렇지 않다	10명
학습관련 생산적 활용의 증가	매우 그렇다	4명
	그렇다	40명
	보통이다	35명
	그렇지 않다	17명
	전혀 그렇지 않다	4명

한편 학부모가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고 응답한 학생들(39명) 가운데 인터넷 이용능력이 향상된 학생은 38.5%(15명)이며, 부모가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94명) 가운데 인터넷 이용능력이 향상된 학생은 18.1%(17명)로 나타났다(<표 14>참조). 그리고 부모가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고 응답한 학생 39명 가운데 21명(53.8%)이 예전에 비해 인터넷을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활용하게 되었으며, 부모가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 94명 가운데 생산적인 활동이 증가한 경우는 33명(35.1%)으로 나타나(<표 15>참조), 학부모가 자녀의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을 때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국사 학습과 학부모참여는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부

<표 14> 학부모참여(홈페이지방문)와 학생의 인터넷 이용능력 향상과의 상관관계

		학생의 인터넷 이용능력 향상					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부모 참여	자주있다	0	2	0	0	0	2
	가끔있다	2	11	19	4	1	37
	거의없다	0	7	12	2	0	21
	전혀없다	2	8	46	12	5	73
계		4	28	77	18	6	133

<표 15> 학부모참여(홈페이지방문)와 학생의 인터넷 생산적 활용 증가의 상관관계

		학생의 인터넷 생산적 활용 증가					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부모 참여	자주있다	0	2	0	0	0	2
	가끔있다	5	14	16	1	1	37
	거의없다	0	6	15	0	0	21
	전혀없다	2	25	35	7	4	73
계		7	47	66	8	5	133

모가 인터넷 이용능력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저소득층의 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으로 정보화 환경의 불평등은 차츰 해소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부모가 인터넷 이용능력이 없는 경우, 오히려 자녀의 학습에 관심을 갖고 함께 인터넷을 하면서 자녀로부터 자연스럽게 인터넷 사용법을 익힐 수도 있다.

연구자에게 E mail을 보낸 학부모 가운데 한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연구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후 자녀로부터 E mail 사용법을 배워 첫 E mail을 연구자에게 보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자녀로부터 오히려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인터넷의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교과학습에의 학부모 참여 방안으로써 인터넷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5주에 걸쳐 인터넷을 활용한 국사 교과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학생·학부모 각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많은 학부모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국사 학습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며, 연구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홈페이지를 방문한 학부모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과학습에 관심은 있으나 ‘바빠서’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한 학부모도 홈페이지의 학습내용을 훑어보고 학부모 게시판에 의견을 게시하거나, 연구자에게 E mail을 보냈으나, 자녀의 학습내용을 지원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학부모가 중학생 자녀의 학습내용을 직접, 그리고 항상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인터넷의 활용은 관심있는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자녀의 교과학습을 ‘참관’할 수 있는 효과적이며 실제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록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한 학부모가 많지는 않았으나, 과반수의 학부모가 자녀와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인터넷을 활용한 교과학습에 관심을 갖고 자녀와 대화를 나눈 이들은 자녀와 더불어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학부모의 참여를 요구한다면 참여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학부모들이다. 그러므로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보다 많은 학부모가 인터넷을 활용한 교과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국사 학습에서의 인터넷 활용은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국사 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가정에서도 자율적인 연습, 복습을 가능케 함으로써 가정에서의 국사 학습과 인터넷 이용 실태에서 긍정적인 성취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의 방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이를 정리하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서울시 구로구 내 K중학교 2학년 학생 133명과 그들의 부모들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미흡하다. 그리고 연구자의 자작 설문지를 조사 도구로 사용하였고, 연구 결과는 회수된 설문지에 의존하여 응답자의 주관적 응답을 종합·분석한 것이므로 교육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K중학교 외 여러 지역의 보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학습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인터넷을 활용한 국사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국사학습에 더욱 흥미를 갖고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한 국사학습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학부모들의 자녀의 교과학습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속적인 학부모의 참여와 학부모참여가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를 입증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이 제시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국사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적용이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권순용(1998). 인터넷 활용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교육정북』, 119, 63-70.
- 김성희·김수형(1999).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교육용 web 콘텐츠 설계 및 구현. 『정보교육학회논문지』, 3(1), 33-42.
- 김용현(1998). 인터넷 활용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실천. 『교육정북』, 120, 123-128.
- 김완수(1999). 「학부모의 자녀교육과 학교교육 참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재춘(1997). 미국의 학교 운영과 활동에 대한 학부모참여. 『새교육』, 2월호, 127-131.
- 김정효(1998). 교과학습에 있어서 학부모참여에 관한 연구: 초·중·고교과목을 중심으로. 『초·중·교육연구』, 12(2), 83-100.
- 김창길(1992). 교사와 학부모의 연계지도들 통한 독서 생활화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 『부산교육』, 262, 82-94.
- 김한중(2000). 국사수업에서 인터넷 미술사자료의 활용. 『역사교육』, 75, 95-126.
- 김희수(2000). 인터넷 활용을 통한 교수·학습 효율화. 『교육마당21』, 2월호, 82-85.
- 김희복(1994). 학교교육과 학부모. 『私學』, 6월호, 19-25.
- 박민정(1999). 「역사교육에서의 인터넷 활용 방안」.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교육대학원.
- 백영균·설양환(1997). 『인터넷과 교육』. 서울: 양서원.
- 송기상(1996). 인터넷의 웹을 이용하는 교육에서의 교사의 역할.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논총』, 12(1), 211-229.
- 신상희(1996). 「초·중·고교에서의 학부모참여를 위한 컴퓨터통신망 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 대학원.
- 윤영민(2000).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청소년보호위원회 제2차정책포럼. <http://www.youth.go.kr>
- 윤철경(1991). 외국의 학부모 교육참여제도와

- 윤영실태. 「새 교육」, 11월호, 34-46.
- 이순형(1992). 학부모 참여에 관한 연구. 「교육학 연구」, 30(2), 243-262.
- 이중성(1997). 역사교육과 인터넷. 「서양사연구」, 20, 147-173.
- 이종성(1998). 인터넷을 활용한 역사교육의 가능성 탐구. 「역사교육」, 66.
- 이진분(1991). 바람직한 학부모 참여에 관한 제언. 「새 교육」, 11월호, 47-55.
- 이진경, 전우권(2000). 웹기반 학습을 위한 평가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정보교육학회논문지」, 4(1), 40-56.
- 이배옥, 옮김(1999). 「인터넷이 학교를 바꾼다 NetLearning: Why Teachers Use the Internet」. 서울: 한빛미디어.
- 이화순(1998). 「고등학교 세계사 수업에서의 인터넷 활용 방안」.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보통신부(2001.1.15).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 조사 요약 결과보고서. <http://www.mic.go.kr>
- 최명숙(1999).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고찰.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14, 235-251.
- 최성희(1995). 「학부모의 참여 유형과 수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Bempechat, J.(1990). The role of parent involvement i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ends and Issues*. No.14. Information analysis of ERIC Clearinghouse on Urban Education.
- de Kanter, A; And Others(1986). Parent involvement strategies: A new emphasis on traditional parent roles. Conference papers. ERIC No.293919.
- Fullan, M.(1987). The Parent and the Community. In Carlson, R.V. & Durchame, E.R.(eds.). *School Improvement Theory and Practice*.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545-576.
- OECD(1997). *Parents as Partners in Schooling*.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OECD.

ABSTRACT

Parental Involvement by Using the Internet: In Korean History education in the Middle School

Choi Keun-Sun • Lee Chong-Kyung

(Kaebug Middle School • Ewha Womans University)

It is generally accepted among education specialists that parental involvement in school education is very important. But due to lack of effective and realistic ways to implementing it, parents have hardly had chance to participate in their children's classroom activities. This study aims to prove that by using the Internet, parents' participation in classroom works is not only possible even in the Middle School, but also effective for the improvement of students' behaviors at classroom and their achievement in learning.

This study was conducted in Korean History class in the Middle School with one hundred and thirty-three students and their parents for five weeks. On the basis of two

surveys this study finds out the followings. Many parents (84% of the respondents) showed much interest in Korean History class and promised to participate in classroom activities in the Internet such as visiting the class homepage. But much less parents (only 38% of the respondents) actually visited the homepage. The survey also shows that most of the parents (75% of the respondents) talked about these activities on the Internet with their children, and knew what was going on in the classroom. This indicates that parental involvement in classroom activities has good potential of being an effective and realistic alternative to bring about a positive change for Middle School students' learning.

Key Words : parental involvement; parental participation; Korean History education in the Middle School; effective use of the Internet